

건저문제[建儲問題]

세자 책봉을 둘러싼 동인과 서인의 갈등

1591년(선조 24) ~ 미상



1 개요

건저(建儲)는 '왕세자를 세운다'는 뜻이다. 즉, 세자 책봉을 의미하는 한자어이다. 다만 역사적 용어로 건저문제라고 하면, 1591년(선조 24)에 왕세자 책봉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옥사를 지칭한다. '건저의사건(建儲議事件)'으로도 불린다. 이 사건은 동·서 분당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다. 즉, 왕위계승 문제와 관련하여 동인과 서인 간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나타났던 사건이다.

2 동·서인 대립과 정여립 모반 사건

선조대는 붕당이 등장하며 새로운 정치가 시작된 시기이다. 선조 즉위 이후 5~6년이 지난 시점에 신진 사림들은 삼사의 언론권에 정승직까지 장악하였다. 또한 이 무렵 사람들은 명종 비 심씨의 동생인 심의겸(沈義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였다. 명종대 진출한 선배

사람들은 심의검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선조대에 진출한 후배 사람은 심의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게다가 심의검이 후배 사람에 해당하는 김효원(金孝元)과 이조전랑(吏曹銓郎) 자리를 두고 대립하게 되면서 사람 역시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서인과 동인으로 세력이 나뉘었다.

이후 이이(李珥)를 중심으로 동인과 서인 모두 같은 사류이므로 봉당을 벗어나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이 역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서인으로 정했고, 동인 계열은 이황(李滉)과 조식(曹植)을 따르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갔다. 그리하여 선조 대 조선에는 학문적 입장과 지역적 기반을 달리하는 동인과 서인이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서인은 이이, 성혼(成渾)의 학문을 계승하며 경기,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 동인은 이황, 조식의 학통을 이어받으며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세력이 되었다.

동인과 서인의 대립은 1589년(선조 22)에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폭발하였다. 정여립 모반 사건은 기축옥사(己丑獄死)라고도 불린다. 정여립은 전주 출신으로 서인의 후원을 받아 성장했지만, 이이 사후에는 동인에 가담하여 서인의 박순(朴淳), 성혼 등을 비판하였다. 결국 그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전라도의 동인들 사이에 명망이 높았다. 이후 그는 전라도 진안(鎭安) 죽도(竹島)에 서실(書室)을 지어 놓고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해서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켰다는 것은 1589년 10월에 황해감사가 올린 기밀 보고에 있었다.

관련사료 선조는 의금부 도사 등을 파견하였고, 정여립은 도주하였다가 죽도에서 자결하였다.

관련사료 이후 약 3년 간 정여립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던 수백 명의 동인들이 탄압을 받았다. 그가 실제 모반을 일으켰는지의 여부는 지금도 논란이 많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인은 서인세력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남인과 북인의 두 파로 다시 갈렸다. 이황의 문인들이 대체로 남인을 구성했고, 조식의 문인들은 북인이 되었다. 이후 임진왜란을 겪으며 그 차이는 극명해졌으며, 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봉당은 다시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3 적자가 없는 왕실

건저문제가 발생하는 1591년은 선조(宣祖, 1552~1608, 재위 1567~1608)가 즉위한 지 20여 년이 지난 때였다. 그러나 의인왕후(懿仁王后, 1555~1600) 박씨(朴氏)는 20년 가까이 임신을 못해 적자인 대군(大君)이 없었다. 다만 여러 군(君)이 있었는데, 후계로 우선 고려되었던 대상은 공빈 김씨(恭嬪金氏, 1553~1577) 소생의 첫째 임해군과 둘째 광해군이다.

하지만 임해군의 비행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자주 올랐고, 조정의 근심이 되었다. **관련사료** “사람의 도리가 없어 금수(禽獸)일 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관련사료** 전 주부(主簿) 소충한(蘇忠漢)을 때려죽였고, **관련사료** 자기가 간통한 여성의 남편도 사람을 매수하여 죽였다. **관련사료** 백성의 토지나 노비를 빼앗는 일도 많았다. **관련사료** 임해군에 대한 대간의 탄핵이 이어졌다. 또한 선조가 명에 보낸 왕세자 책봉 주문(奏文)에도 임해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바깥 유혹에 홀려서 못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있으니, 군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서술되어 있다. **관련사료**

광해군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 기록이 많지 않다. 아홉 살 때 『소학(小學)』을 배웠다는 기록이 있다. [관련사료](#) 그나마 다른 형제들에 비해 학문을 좋아하고 총명하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부왕 선조가 그를 특별히 총애하지는 않았다.

4 건저문제의 촉발과 봉당 간 대립

왕실에 후궁들이 낳은 군(君)만 여럿 있는 상황에서 세자 책봉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세자위를 계속 비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1588년(선조 21)에 서인 계열의 조헌(趙憲)과 [관련사료](#) 동인 계열의 윤국형(尹國馨)은 경쟁적으로 세자 책봉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관련사료](#) 특히, 1589년(선조 22)에 승지 윤국형은 세자 책봉과 함께 왕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이권 침탈, 뇌물 청탁 등의 행위를 금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상주목사로 폄출되기도 했다. [관련사료](#)

1591년(선조 24)에는 서인 계열 정철(鄭澈)이 건저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좌의정 정철은 세자 책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의정 유성룡(柳成龍), 부제학 이성중(李誠中), 대사헌 이해수(李海壽) 등과 함께 선조에게 건저를 주청하자고 협의했던 상황이었다. 이때 정철은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에게도 의논하려 했으나, 이산해는 당시 선조의 총애를 받고 있던 후궁 인빈(仁嬪) 김씨(金氏)의 오빠 김공량(金公諒)과 결탁하여 세자 책봉 논의를 회피하였다. [관련사료](#) 그리고 이산해는 인빈에게 정철이 세자 책봉을 이룬 뒤에 인빈과 그 아들 신성군(信城君)을 죽이려 한다고 무고하였다. 인빈은 이 사실을 선조에게 알렸다. [관련사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정철은 경연에서 건저문제를 거론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샀다. 같이 세자 책봉을 주청하려 했던 이산해와 유성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관련사료](#) 결국 정철은 관직이 삭탈되었고, 같은 서인으로 세자 책봉에 대해 논의하였던 이성중, 이해수 등도 모두 지방관직으로 좌천되었다.

이 건저문제는 정여립의 모반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정여립 모반 사건은 그 자체가 날조된 것이라는 평이 있지만, 정철은 사건의 확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 동인이 대거 탄압을 받은 데에는 서인 정철의 역할이 주요하게 작용했던 셈이다.

그리고 나서 약 2년 후에 건저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철은 파직되었고, 서인들도 축출되었다. 대신 정여립 모반 사건에 연루되었던 최영경(崔永慶)이 복직되었고, 동인 정권이 수립되었다.

5 임진왜란의 발생과 광해군의 세자 책봉

1591년(선조 24) 건저문제는 동인과 서인의 대립을 촉진시켰을 뿐 원래 목적했던 세자 책봉을

이루지는 못했다.

세자 책봉 논의가 다시 이루어진 계기는 임진왜란이었다. 1592년(선조 25) 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세자 책봉을 촉구하는 상소가 이어졌다. 더욱이 수도 한양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피난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조는 결국 세자 책봉을 결정하였다. 선조는 총명하고 학문에 힘쓰는 광해군을 세자로 삼는 것이 어떠한지 물었고, 신하들은 동의하였다. [관련사료](#)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보름만인 4월 29일에 광해군이 세자에 책봉되었고, 선조는 이튿날 새벽에 피난길에 올랐다.